



한 총리, 외투기업의 투자확대 및 적극적인 경영활동 요청

- 한국의 굳건한 경제시스템과 펀더멘털 강조 -
- 한국의 투자시스템 정상적으로 운용 중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1일(수)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초청받아, 주한 독·불기업 대표 및 주한 독일·프랑스 대사와 함께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 (참석)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독일대사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프랑스대사(필립 베르투)
- ▲(주한외국기업) 한독상의·한불상의 임원진 및 주한독일·프랑스기업(150여개사) 대표단 등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등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동 행사는 외국인투자실적* 확대를 위한 소통 창구로써,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점검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신고기준, 억불) : ('21년) 295.1 ('22년) 304.5 ('23년) 327.2 ('24.3분기) 251.8

한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쳐나가 줄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요청하였다.

한편, 주한 독·불 기업대표들은 한국의 투자 환경과 청정에너지 전환, 양자과학기술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 기업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전문위원	김태민 (044-200-222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